“새누리 진정성 보인다면 호남인들 대선서 마음 문 열 것”

보수여당 첫 호남대표에 듣는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변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재선을 이룬데다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 여당의 대표가 됐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의 정치적 자산은 ‘진정성’이다. 이를 통해 견고한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전북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등의 당선은 ‘이정현 효과’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비주류, 비엘리트 출신으로 ‘촌놈 정치’를 내세운 이정현 대표의 성공 스토리는 기득권 구조의 사회 전반에 던지는 의미도 크다. 특히, 지역주의 구도에 갇혀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호남 민심은 이정현 대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이정현 효과에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야권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마주한 현안도 만만치 않다. 당내의 계파 갈등 해소,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대선 경선 관리 등은 난제다. 그가 첩첩히 쌓인 난제를 풀어가며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이끌어 내는 ‘나비효과’를 현실화 시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4일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정현 대표는 특유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혁신과 변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대표 취임 후 보름이 지났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당선되다 보니, 일단 모두가 거리를 두고 응시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 혁신, 새누리당의 변화, 민생 우선을 약속했다. 이는 저를 뽑아준 순천 시민과 새누리당 당원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계파 갈등 해소가 난제다.

▲계파나 파벌은 어느 정당·정권·조직 구분 없이 다 있다. 계파 갈등의 여부는 추구하는 공동 가치를 위해 함께 몰두하느냐에 달렸다. 정치개혁과 새누리당의 변화, 민생에 전념하게 된다면 계파색은 더 옅어질 것이라고 본다. 일단, 지난 경선 전에 비해 당내 계파 갈등은 많이 잠잠해졌다. 또 주류·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전화하고 만나고 있다. 오히려 비주류 인사들이 적극 돕겠다고 격려를 해 주고 있다.

-정치권의 지역주의 장벽을 잇달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주의도 계파 논란처럼 하루 밤 만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호남에서 특정 정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경쟁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정치권의 지역주의는 완화되고 있다. 실제로 호남 순천에서 문을 여니 지난 총선에서는 영남에서 더 많은 문이 열렸다.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 대표가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지역 장벽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SNS 등을 통한 정보화로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에 나서고 있어 지역주의의 붕괴는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의 호남 인식은 변화하고 있나.

▲전형적인 호남출신인 내가 대표가 됐다. 새누리당 내부의 호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약화됐다는 극명한 사례다. 의식 변화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호남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나

▲호남민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과거에는 당을 봤지만 이제는 사람을 본다. 대선에서도 호남 출신의 유력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 당에 집착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은 다르다

▲만만찮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호남에서 일방적인 선택은 없을 것이다. 호남 출신 대선 주자도 없는데 과거와 같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해서 잘못될 경우, 손해 볼 필요가 있느냐. 새누리당이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호남에 천착한다면 대선에서 마음의 문을 열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호남의 아쉬움이 크다.

> “
> **호남 정계개편 주도 쉽지 않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할 수 있어**
>
> **22년만에 지역주의 장벽 넘어 섬기는 리더십으로 민생정치 펼것**
>
> **개헌은 제로베이스서 시작돼야 경제·민생 블랙홀 빠져선 안돼**
>
> ”

▲호남이니까 배려해야 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한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 광양만권 활성화대책, 새만금사업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호남의 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는 논리와 근거를 세워야 한다. 떼쓰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며 호남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다.

-탕평인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탕평인사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만족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감시하고 탕평·배려·균형,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내년 대선 앞두고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호남에서 스스로 유력 대권주자를 낼 수 없는 형편이고 호남 정치권에 3개의 정당이 정립하고 있다. 세 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두 명이 당선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호남이 과거 DJP 연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얻으려다 하나도 못 얻는 것 보다는 함께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정치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호남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호남이 주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38석으로 제3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3당이 1당과 2당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많은 세력과 새롭게 어떤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캐스팅 보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슈퍼스타 K방식의 서바이벌 대선 경선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압축한다는 점에서 반기문 총장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다. 각 후보들에게 개방하고 외부 영입을 확대, 다양한 분들이 3~5개월 가량 치열한 정책토론회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국민여론조사 통해 한 사람씩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누구든 정책토론회 등에서 비전을 보이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 기존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모든 것을 제로 그라운드에서 시작, 국민에게 준비된 정책을 갖고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야말로 어떤 기득권도 인정되지 않고 누구를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개헌 논쟁으로 들어가 경제나 민생 등이 블랙홀로 빠져선 안 된다. 개헌이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 정권의 주도 아래 이뤄져선 안 된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국민헌법이 돼야 한다. 방법론으로는 차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고 나서 실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야가 추경안과 서별관 청문회로 충돌, 협치가 실종되고 있다.

▲지금 야당의 태도는 집권 안하겠다는 것이다. 평생 야당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협치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선 정당을 초월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한다.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는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가면 된다.

-사드 배치 논란이 크다.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다. (북한은) 전방에 재래식 무기를 대거 배치해 놓고 핵과 미사일실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포 사격장을, 군 부대를 미군 기지를 유치하려 하겠는가. 안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도 지역민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끝까지 설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의 해결책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군가는 (우 수석이) 잘못이 있다고 해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인사권자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박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면 누가되든 끌어안고 있어본 적이 없다.

-정치 입문 후 가장 힘들었던 적은.

▲그간 힘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떳떳한 격려의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등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최고 중진회의를 해도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겠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으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 22년 만에 지역주의 장벽을 넘었다. 새누리당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민생정치를 펼쳐 보겠다.

-호남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한다면.

▲호남은 기회를 맞고 있다. 기존의 산업축은 낙후·사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미래 산업투자의 최적지가 호남이라고 본다. 땅값 싸고, 일하고 싶은 사람 많고, 교통 등 환경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다. 호남만큼 이러한 여건이 좋은 곳은 없다. 미래형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적지다. 하지만, 정치적 치적을 남기려는 사업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리=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